

체육과 무(武), 국가 번영의 기초 -플라톤과 박은식의 사상을 중심으로-

Physical Training and Martial Art, the Foundations for a Flourishing State
-Focusing on the Thoughts of Plato and Park Eun-sik-

홍영기*, 홍진기**

청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Youngki Hong(spinehong@gmail.com)*, Jinkee Hong(geviert@naver.com)**

요약

플라톤의 존재론은 물질과 정신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간주하는 이원론보다는, 이데아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론(Holism)에 가깝다. 그의 형이상학에서 감각적 사물은 이데아의 모상이며, 이데아는 그것의 원형이다. 그에 따라 인간의 육체와 영혼도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연속적이며 기능적으로 상보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영혼의 완성을 추구하는 플라톤의 교육관에서 체육을 중시하며 그것을 공부의 전제로 삼은 이유는 이러한 존재론에 근거한 것이다. 구한말 독립운동가 박은식 역시 플라톤과 비슷한 교육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 민족이 회복해야 하는 내면의 가치인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선, 무(武)의 교육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플라톤과 박은식 모두는 체육과 무(武)의 교육이 그들이 추구했던 인간상을 만들기 위한 공부의 전제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교육과정을 통해 육성된 인재들은 사회에서 각자 자신의 직분을 다함으로써 국가의 번영을 이끌 것이라 기대했다. 결론적으로, 플라톤과 박은식의 사상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육과 무(武)의 교육은 인간의 개인적 완성을 위한 공부의 전제이자,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교육과정 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중심어 : | 플라톤 | 박은식 | 체육 | 이데아 | 전체론 |

Abstract

Plato's ontology is closer to Holism, which is based on IDEA, than to Dualism, which regards the matter and soul as being independently from each other. According to his metaphysics, the sensory things are the copies of IDEA. and IDEA is the original of them. Hence human body and soul are not separate from each other, but are ontologically continuous and functionally complementary. The reason why Plato's view of education, which pursues the perfection of the soul, emphasizes the physical training and makes it the premise of study is this ontology. It seems that Park Eun-sik, an independent activist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has a view of education similar to Plato's.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martial art in order to restore the our people's inner quality, 'Mind(心)'. Both Plato and Park Eun-sik thoughts that the education of physical training and martial art was the premise of study to make the humanity they pursued. And they expected that the talented people raised through the curriculum proposed by them would lead the prosperity of the nation by fulfilling their respective roles in society. In conclusion, from the view of Plato and Park Eun-sik's thoughts, it can be said that, the education of physical training and martial art for students is the premise of the study for personal perfection of human beings, and essential curriculum for making the ideal state that they dreamed.

■ keyword : | Plato | Park Eun-sik | Physical Training | IDEA | Holism |

I. 서론

흔히 플라톤은 신체보다는 영혼을 중시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존재론에서 세계는 영원불멸하는 이데아의 영역과 생멸 변화하는 사물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고, 이들 사이엔 존재론적 위계가 놓여 있기에, 그는 비물질적인 세계의 중요성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이원론자로 간주되기도 한다[1]. 그는 사람들의 인식이 육체성에 기인하는 감각적인 세계에 빠져 있어, 참다운 실체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보았다(『파이돈』, 65c)[2].

플라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도록 일깨우고, 사람들이 공부를 통해 실재를 직관하는 인식의 경지에 이르도록 인도하려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그의 철학과 교육관에서 체육에 할애할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와 『법률』에 따르면, 체육은 교육의 필수과정으로 설정되어 있다[3].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를 비롯한 상위 계급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후보자들의 체육적 역량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플라톤이 생각한 체육은 당시의 역사/문화적 상황 속에서 주로 무술이나 전쟁기술과 관련된 것이었고, 젊은이들 중에 빼어난 전사(戰士)의 풍모를 지닌 자만이 교육을 통해 상위의 계급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최상위 계급에 위치하는 철인(哲人)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이기 이전에 전사(戰士)다. 이처럼 그의 교육관에서 체육과 무(武)의 위상은 매우 높다.

한국의 독립운동가 박은식 역시 플라톤과 유사한 관점을 지녔다. 그에 따르면, 조선이 빈곤하기 짝이 없었으며 그토록 굴욕적이고 무력하게 식민지가 된 이유는 조선 민족이 그가 ‘마음’이라 명명한 정신적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조선 역사에서 무(武)의 실종과 관계된 것이라 보았다[4]. 따라서 그는 조선의 부흥을 위해선 젊은이들에게 무(武)의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고대 아테네의 황혼기에 플라톤이 영혼의 각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조선이 궁핍한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박은식은 마음의 재발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런 영혼의 각성과 마음의 재발견을 위해선 두 사람 모두 체육과 무(武)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유사성이다.

본 논문에서 논자는 플라톤과 박은식의 철학과 교육관을 살펴봄에 그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체육과 무(武)를 중시한 것인지 다뤄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논자가 열어 밝히려 하는 것은, 체육교육의 본래적 가치는 이 시대 교육의 현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궁극적으로는 체육과 무(武)야말로 국가 변영의 보편적 기초가 된다는 진실이다.

II. 본론

2.1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2.1.1 유한 자와 무한 자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존재하는 것을 크게 ‘생성을 갖는 것’과, ‘생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전자를 비이성적인 감각에 의한 의견(Doxa)의 대상으로, 후자를 지성에 의한 앎(Noēsis)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그는 ‘생성을 갖는 것’은 변화하고 소멸하는 것이나, ‘생성을 갖지 않은 것’은 언제나 같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티마이오스』, 28a)[5].

한편, 『파이드로스』에선 존재하는 것을 ‘운동성’에 따라 구분하여, ‘타자에 의해 운동하게 되는 것’과, ‘스스로 운동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그는 ‘스스로 운동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들의 운동의 근원(Pegē)이며 기원(Arkhe)이 된다고 보았으며, 기원은 그 어떤 것로부터도 생기지 않기에, 생성되지 않는 것이므로, 소멸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다(『파이드로스』, 245c)[6]. 그리고 스스로에 의해 운동하는 불사(不死)의 것을 ‘혼’으로 보았다(『파이드로스』, 246a)[6]. 그에 비해, 운동성을 부여받은 것의 총체인 ‘천구(天球)’는 시간과 함께 생겨났으며, 이들은 언젠가는 함께 소멸한다고 생각했다(『티마이오스』, 38b)[5]. 플라톤의 『국가』에서 이 주제는 다시 ‘순수하게(절대적으로) 있는 것’과, 그것과 ‘전적으로 있지 않은 것’의 중간에 위치한 것의 구분으로 논의된다(『국가』, 477a)[7]. 그리고 전자를 인식하는 자들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철학자들: Philosophoi)’이라 하고, 후자를 인지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

을 ‘의견(doxa)을 사랑하는 사람들(Philodoxoi)’로 부른다(『국가』, 480a)[7].

이런 논의에서 결론적으로, 플라톤은 세상의 존재자를 감각의 대상인 유한한 것과 지성의 대상인 무한한 것으로 나눈다. 그리고 전자는 시간에 구속된 채 생멸 변화하며, 후자는 시간을 벗어나 영원불멸 하다고 보았다.

2.1.2 비 이원론 혹은 전체론.

플라톤이 존재하는 것들과 그것들에 관련된 사항들을 두 종류의 틀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후 많은 학자들은 그의 사유를 ‘형이상학적 이원론(二元論/Dualism)’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이데아와 사물, 정신과 육체 사이에 존재론적/인식론적/가치론적 ‘단절’에 기초하는 위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성은 플라톤이 신체의 가치를 경시한 이원론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뿐 아니라[10][11], 그 반대 진영, 즉 플라톤이 신체의 가치를 중시한 철학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에서조차도 발견된다[12][13]³. 하지만 논자는,

1 정삼현은 “이데아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고, 생각에 의해서만 이해가 가능하다...이데아는 한 개다. 모든 사물에 있어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가령 눈(snow)에서 이데아는 ‘눈’이라는 것이고, 불(fire)의 이데아는 ‘열’이라는 것이며, 인간의 이데아는 ‘영혼’이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8].

그러나 논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데아를 지성으로 직관하는 것 또한 인간의 ‘경험’에 속하는 것이다. ‘경험’을 감각에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데아는 실제 그 자체이며 우주라는 현상계는 이데아의 다양한 표현의 총체인 것이기에, 각 사물마다 이데아가 개별적이고 고립적으로 한 개씩 따로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더욱이 위 인용문에서 이데아의 예로 제시한 ‘눈’이나 ‘열’은 감각적 경험들의 사례들일 뿐이다.

2 강유원은 “플라톤은 진정한 실재는 생멸·변전의 현상계에 존재하지 않는 양립·불변의 정신적인 것이며 이런 정적인 실체가 현상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라고 주장한다[9].

여기서 논자가 우선 주목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의 의미다. 플라톤에 의하면, 무한한 것, 진정한 실재, 곧 이데아는 분명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관념적인 것도 아니다. 이데아는 물질과 관념 너머에 있는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참된 실체다. 그런데 이런 실재를 인간은 오직 그의 영혼/정신에 의해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이런 참된 실체인 이데아가 물질적인 것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현상계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이데아는 현상계와 서로 참여와 표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3 그에 비해, 강성훈은 “만약 물리주의와 심신이원론을 대비시키는 논

플라톤을 이원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기본 입장을 취하며, 그 경우 대체 플라톤의 사유가 어떠한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실제로 우리가 그의 저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의 존재론적 사유를 ‘이원론’이라 확정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특정한’ 위계를 부여했을 뿐인 것 같다. 즉 플라톤은 가시적인 것들(ta horata)이나 감각 대상들(ta aistheta)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것들(ta noeta)에 비해 실재(Reality)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전자에 속하는 것일수록 생멸 변화에 종속되는 반면, 후자에 속하는 것일수록 영원성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이들 사이엔 우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러한 우열이 서로 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플라톤의 ‘선분의 비유’에서 ‘눈에 보이는 부류’와 ‘지성에 알려지는 부류’는 하나의 선분에서 ‘연속되어’ 있다(『국가』, 509e)[7]. 그리고 이 둘은 모상(模倣:mimema)과 그것의 원형(原形:paradigma)의 관계를 갖는다(『티마이오스』, 48e)[5].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상위의 것은 하위의 것의 원형이며 근본이고, 반대로 하위의 것은 상위의 것의 모방이며 표현이다. 그리고 이런 원형과 모방물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이데아의 ‘참여(Metexis)와 모방(Mimesis)’이다⁴. 이런 의미에서, 그 둘은 별개의 것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상보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식의 사유는 데카르트적 이원론, 즉 사유하는 존재자(res cogitans)로서의 마음과 연장하는 존재자(res extensa)로서의 물체를 서로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독립적 존재로 간주하는 논의와는 구별된다.

플라톤의 세계관에서 사물과 이데아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어져 있으며, 이때 우리는 플라톤의 사유

의 구도를 플라톤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면, 플라톤을 심신이원론자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범주착오를 범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한다[14].

4 플라톤의 ‘모방(Mimesis)’은 단순히 두 사물들 간의 외적 유사성(Imitation)을 의미하기보다는 더 상위의 것이자 원형이 더 아래의 것에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어나는 존재론적 사건이다. 그리고 그 결과 모방물이 생겨나는 것이다.

에서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곧 이 세계의 물질적이거나 감각적인 사물들은 인간이 부정하고 벗어나야 할 단순한 환영(幻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이 이데아를 향해갈 때 내딛는 첫 번째 계단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감각의 대상들을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그것의 원형인 실재(實在)에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⁵. 이와 관련해 『향연』의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향연』, 211b)[6].

...이들 아름다운 것들에서 시작하여 저 아름다움 때문에 언제나 위로 올라가는 것, 마치 사다리의 가로장들을 이용하듯, 하나에서 둘로, 또 둘에서 모든 아름다운 몸들로, 또 아름다운 몸들에서 아름다운 관행들로, 또 관행들에서 아름다운 배움들로, 그리고는 배움들에서 저 배움(mathēma)으로 끝을 맺는 것 말이에요. 이는 저 아름다움 자체(auto to kalon)의 배움 이외의 다른 것의 배움이 아니거니와, 마침내 아름다운 것 자체(autoho esti kalon)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논의를 고찰해 보면, 플라톤의 사유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각각 고유의 독립적 원리를 지니고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의 존재론에서, 세계는 이데아가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는 장(場)이며, 인간은 그 영혼의 수준에 따라 실재(實在)를 직관하거나 그것에서 먼 것을 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플라톤을 이원론자로 간주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의 저서에 종종 나타나는 육체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 때문인 것 같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육체가 혼이 올바르게 추론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며, 혼은 육체의 감각성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만, 진리에 이르는 사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파이돈』, 65c)[2]. 육체가 혼의 추론을 방해하는 상태, 즉 인간의 인식수준이 육체의 감각성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의미를 앞서 인용한 『향연』의 구절(『향연』, 211b)[6]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한 몸만을 사랑하며, “모든 몸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이 동일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플라톤의 관점에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은 그 자체로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앞서의 인용문에서(『향연』, 211b)[6] 디오티마가 말하는 바처럼, 감각적인 것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인식을 한 단계씩 보다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 향해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아름다움 그 자체를 볼 때까지 인식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첫 계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서 플라톤은 육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영혼의 수준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육체성을 논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의식의 수준이 계속해서 육체성에 머무르고 매어져 있을 경우에만, 그것은 참다운 인식이 아닌 것으로 경시되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의식의 수준에 따라 의견(doxa)을 사랑하는 사람들(philodoxoi)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철학자들 : philosophoi)로 구별한다(『국가』, 480a)[7]. 그리고 그는 교육을 통해, 전자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후자의 부류가 되도록 ‘혼의 전환(psyches periagoge)’을 이끌려 한다(『국가』, 521c)[7].

그런데 플라톤 철학에서 공부를 통해 이데아를 직관하는 지혜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플라톤은 이것이 혼 안에 없는 지식을 채워 넣어서가 아니라,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우리의 혼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상기(想起)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메논』, 81d~e)[15].

...훌륭함(덕)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혼이 역시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기에, 상기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닐세. 온 자연이 동족 관계에 있고 또한 혼은 모든 것을 배웠으므로, 하나만이라도 상기하게 된 -바로 이걸 사람들이 배움(mathesis)이라 일컫는데- 이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을 알아내는 걸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네. 만약에 누군가가 용감하고 탐구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다면 말일세. 탐구한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5 이것을 플라톤은 ‘상기(想起/Anamnesis)’라 한다.

상기함(anamnesis)이기 때문일세.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은 자연이 동족 관계에 있고 또한 혼은 모든 것을 배웠으므로’라는 구절이 상기(想起)를 통해 인간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의 근거가 된다. 여기서 ‘은 자연이 동족(同族) 관계’라는 말을, 논자는,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포함한 자연의 모든 것이 이데아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유로 해석한다. 즉 자연의 삼라만상은 하나의 이데아의 다양한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동족 관계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구절에서, ‘혼은 모든 것을 배웠으므로’ 말을, 논자는, 혼은 인간의 본성이자 우주의 실상인 이데아 자체에 관한 앎, 곧 ‘Noesis’라는 의미의 표현이라 해석한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육체나 감각적 사물은 이데아의 참여(metexis)의 결과이자 모방물이다. 따라서 이데아는 사물을 통해 드러난다. 비록, 인간의 의식세계에서 이데아는 육체 안에 잠들어 있으나, 사물에 대한 육체적 감각의 경험은 이데아에 대한 기억을 촉발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래서 감각적 경험에 머물지 않고 용감하고 열심히 탐구하면 상기함(anamnesis)을 통해, 인간의 의식이 이데아라는 근원적 절대지평에 다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상기론’은 이렇게 플라톤의 존재론을 전제하고 있다. 즉 사물은 모방물(mimema)로서 이데아라는 본(paradigma)에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세계가 서로 독립적인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이원론이 아니라, 이데아를 근본으로 하는 ‘전체론(Holism)’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2 체육교육과 상무정신

2.2.1 체육은 교육의 전제

플라톤 교육의 최종적 목표는 실재를 직관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가 구상한 교육과정은 어린 시절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일생에 걸쳐 여러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단계의 교육과정을 가장 우수하게 이수한 사람들만이 선별적으로 상위의 교육과정으로 진입하게 된다. 유년기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교육 과정에서 체육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플라톤의 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지향

점이 감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포착되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교육과정에서의 체육에 대한 중시는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글라우콘과 국가의 수호자 계층을 양성하기 위한 상위의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찾는 논의를 한다. 거기서 그는 체육의 대상이 신체와 관련된 생성, 소멸하는 것이므로, 체육은 실제(Reality)에 혼을 끌어당기는 교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다(『국가』, 521e)[7]. 한편, 『변론』에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해 말하는 대목을 보면,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몸이나 재물보다는 혼에 대해서 마음을 써서 혼이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한다(『변론』, 30b)[2]. 이처럼 플라톤 철학의 궁극적 주제가 혼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은, 그가 신체 활동을 경시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와 『법률』에 서술된 그의 교육론에서 체육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이 상황은 그가 생각한 체육의 교육적 역할을 들여다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그는 체육의 참된 가치를 몸이 아니라 혼을 고양시키는 것에 두었다. 즉, 체육은 생성하고 소멸하는 몸을 다루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혼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 체육은 몸을 위해, 시가(mousike)는 혼을 위해 제도화한 것이 아니라, 이 둘 모두가 혼을 위해 있는 것이라 말한다. 플라톤은 체육이 혼에서 격정(기개 : thymos)적인 면(to thymoeides)을 일깨운다고 보았다(『국가』, 410b~c)[7].

…그는 이 체조와 운동도 다른 운동선수들이 힘을 위해서 먹을 것과 운동을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염두에 두고서 보다는 체 천성의 ‘격정(기개 : thymos)적인 면(to thymoeides)’을 염두에 두고 이를 일깨우느라 힘들어서 할 걸세…그렇다면…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 체육으로는 몸(soma)을 보살피되, 시가로는 혼(psyche)을 보살피기 위해 이를 제도화한 것이 아니겠군…무엇보다도 혼을 위해서 양쪽 다를 제도화한 것 같으니.

플라톤이 구상한 체육교육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며, 그는 체육이 용기(기개)의 수행으로서 혼의 훌륭한 한 부분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한다(『법률』, 791b)[16].

...어릴 적부터 두려운 것들과 함께 온 모든 혼은 그만큼 더 무서움을 겪게 되는데 길들여질 것이라는 데 대해서 말입니다...이와 반대되는 것은 바로 어릴 적부터의 용기의 수행이고, 우리에게 부딪쳐 오는 두려운 것들과 무서움을 이겨내는 것이라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아주 아이들일 적의 여러 가지 운동 형태의 체육도 혼의 훌륭한(훌륭한 상태, 덕: arete)의 한 부분에 크게 기여된다고 말할시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체육은 실제로 혼을 직접 끌어당기는 교과는 아니나, 혼의 걱정(기개: thymos)적인 면을 일깨우는 용기의 수행이라는 점에서, 혼의 훌륭한에 크게 기여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서 인용한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과의 대화(『국가』, 521e)[7]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가 거기서 논의한 교과과정은 수호자 계층으로 선발된 자들을 위한 것인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의 ‘체육과 무(武)’의 단련을 통해 탁월한 전사(戰士)로 성장한 이들이다. 즉, 플라톤의 교육적 관점에서, 혼의 걱정을 일깨우는 용기의 수행을 가장 훌륭하게 성취해낸 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 즉 기초교육 과정의 핵심을 이루는 체육활동을 충실히 성취해낸 자들만이, 성년이 되었을 때 상위의 학문의 세계로 입문할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한다.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수호자 계층의 교육과정으로 입문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국가』, 521d~e)[7].

...이 사람들이 젊을 적에는 전쟁 투사들이어야만 한다고 우리가 실은 말하지 않았던가?...우리가 찾고 있는 교과는...전사(戰士)들에게 무용한 것이 아니어야만 한다는 걸세...이들은 앞서 우리한테서 체육과 시가(詩歌)에 의한 교육을 분명히 받았네.

그리고 이들에게 실제(實在)에 혼을 끌어당기는 교육과목으로 제시된 것은 수론(數論), 평면 기하학, 입체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和聲學)이다(『국가』 521c ~ 531e)[7]. 플라톤은 이 학문들이 밤과도 같은 낮에서 진 짜 낮으로 향하는 ‘혼의 전환(psyches periagoge)’을 유도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다(『국가』, 521c) [7].

그런데 이를 통해 도달하는 인간 인식의 영역은 선분의 비유를 들자면 추론적 사고(dianoia)에 해당한다(『국가』, 511e)[7]. 이 단계의 사고는 감각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높은 사고의 수준으로 ‘지성에 의해서 라야 알 수 있는(noeton)’ 것을 사유하는 단계이긴 하나, 탐구를 위해 가설(hypothesis)들을 이용하되, 그 가정들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사람이 지식(인식:episteme)을 얻지는 못한다(『국가』, 533c) [7]. 즉, 이 과목들은 최종 단계의 교육과정인 ‘변증술(dialektike)’을 돕는 예비교육 과정으로 제시된다. 플라톤은 이를 본 악곡과 서곡의 관계에 비유한다(『국가』, 531d)[7].

이와 달리, 교육과정의 본 악곡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변증술(dialektike)’에서야 비로소 가설들을 하나하나 폐기하고서,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리(arche) 자체로 나아가(『국가』, 533d)[7], 일체의 감각(aesthesia)은 쓰지 않고서 ‘이성적 논의(이성: logos)’를 통해서 ‘각각인 것 자체(auto ho estin hekaston)’를 향해 출발하고, 그 끝에 이르러 ‘좋은 것 자체(auto ho estin agathon)’를 ‘지성에 의한 이해(알) 자체(aute noesis)’에 의해서 파악하게(『국가』, 532a)[7]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실재(實在)의 직관’이라는 플라톤 교육의 최종목적이 달성된다.

여기서 우리의 물음은 다음과 같다: 체육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플라톤은 교육과정에서 체육이 배제되면 다음과 같은 인간형이 만들어진다고(『국가』, 411b)[7] 말함으로써 답을 한다.

...그래서 전 생애를 통해 계속해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노래에 흠뻑 매료된 상태로 보낼 경우...나중에 어느새 자신의 기개(격정: thymos)를 녹여서 흐물흐물하

게 만들어서는, 마침내는 이를 아원 상태로 만들어, 마치 힘줄을 잘라내듯, 혼에서 도려내어 ‘나약한 창병(槍兵)’으로 만들어 버릴 걸세.

여기서 플라톤은 사람이 체육을 통한 훈육이 없으면 유약한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플라톤이 구상했던 상위의 교육과정에서 배제된다. 그 선발의 시기는 청소년기 후반 2~3년간 체육에만 집중하는 때를 막 벗어난 스무 살 무렵이며, 이들이 전(前) 시기 체육활동을 통해 드러내는 모습은 위에서 언급된 상위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기준이 된다(『국가』, 537b)[7]. 상위의 교과과정인 변증술과 그 예비교과목들을 본 악곡과 서곡의 관계로 간주한 플라톤의 비유를 사용해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 보자면, 본 악곡이든 서곡이든 훌륭한 연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잘 조율된 악기’다. 그리고 체육은 훌륭한 연주를 위해 ‘잘 조율된 악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온전히 체육활동을 수행해낸 자만이 상위의 교육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⁶. 그런 이유로 사회 구성원들이 유년기에서 청년에 이를 때까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시행되었던 교육과정은 시가(mousike)와 체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 교육과정의 의미에 관해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국가』, 412a)[7].

…시가(mousike)와 체육(gymnastike)을 [혼의] 걱정(기개)적인 면(to thymoeides)과 ‘지혜를 사랑하는(애지적인) 면’(to philosophon)을 위해서…시가와 체육을 가장 훌륭하게 혼화(混和)하여, 이를 혼에 가장 알맞게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완벽한 의미에 있어서 가장 시가적이며 가장 조화로운 사람이라고, 현악기의 현들을 서로 조율해 내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여 지당할 걸세.

체육은 ‘조화로운 영혼’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며, 그런 영혼을 지닌 자에 한해 상위 학술과정의 성취가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체육은 학문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영혼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체육을 통해 조화로운 영혼을 갖춘 자만이 상위의 학문들, 궁극적으로 ‘변증술’을 통해 ‘좋은 이데아’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플라톤이 교육에 적합한 개인의 자질, 즉 학문의 소질이랄 수 있는 철학적 성향으로 제시한 것은, ‘쉽게 배우는 능력’, ‘좋은 기억력’, ‘용기’ 그리고 ‘고매함’인데(『국가』, 494b)[7], 이것들 중에 앞의 두 가지가 타고난 지능과 관련된 것이라면, 뒤의 두 가지는 기초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과 관련이 깊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플라톤은 영혼을 그의 삼분설에 따라, 헤아리는(logistikon) 부분, 욕구적인(epithymetikon) 부분, 기개(thymos)의 부분으로 나누었다(『국가』, 439d~e)[7]. 그리고 영혼의 각 부분들이 서로 간에 적절한 균형을 형성하고 있는 조화로운 상태를 ‘올바름’이라 규정했다(『국가』, 443d)[7].

여기서 기개의 부분의 역할에 대해, 플라톤은, 사람의 욕구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 영혼이 헤아리는 부분의 인도를 따르도록 이성(logos)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국가』, 440b)[7]. 따라서 기개의 부분이 충실히 성장해 있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은 욕구적인 부분에 장악될 수 있으므로, 교육에서 기개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과정은, 영혼의 각 부분들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영혼의 각 부분들이 조화된 상태를 음계의 세 음정(horos)인 최고음(neate), 최저음(hypate), 중간음(mese)이 조화된 음악의 상태에 비유한다(『국가』, 443d)[7]⁷. 그래서 간단히, 체육은

6 한정선은 “그의 신체관 및 신체교육관은 근원적으로 심신 일원론적(형이상학적 심신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심신 간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고, 몸을 지배하는 것이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몸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17].

그러나 논자는 이처럼 상호 간의 ‘영향력’을 근거로 플라톤의 관점이 ‘심신일원론적’이라고 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플라톤은 그의 작품들 어디에서도 영혼과 신체가 하나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 이는 그의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또한 용어(개념) 사용에서 어떻게 “심신일원론적(형이상학적 심신이원론)”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7 강유원은 “이상주의는 플라톤에 의해 처음으로 짜인 관념론에 입각한 철학과 그 세계관…체육은 개인의 지성발달에 공헌해야만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체육교사는 낮은 평균대에서의 어려운 기술을 묘사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들이 평균대

영혼의 기개를 일깨우며, 기개는 육구적인 부분을 제어하여, 영혼의 헤아리는 부분을 돕는다. 그 결과 영혼의 각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이처럼 체육교육은, '올바름'이라 규정된 조화로운 영혼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영혼을 지닌 자만이 상위의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플라톤은 '사지가 건전하고 마음이 건전한 사람들'에게 철학을 교육하면 정의(올바름: dike)에 부합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며, 나라와 정치체제가 보전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게 되면 정반대의 결과가 생길 것이라 말한다(『국가』, 535c)[7].

이에 따르면, 체육은 바로 '사지가 건전하고 마음이 건전한 사람들'을 만드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플라톤의 관점에서, 철학 공부의 '무자격 상태'다. 따라서 체육이 전제되지 않은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플라톤의 교육적 입장인 것이다⁸.

를 잡을 때 손은 어떤 각도이어야 할까? 이상주의 체육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한다[9].

하지만 논자는 이것이 플라톤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자는 플라톤의 교육관에서 체육이 지성의 발달에 공헌하게 되는 근거는 위 논문의 논의처럼 학생이 특정한 동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 이성적 추론을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다.

플라톤의 사유에 의하면 체육은 본질적으로 학생 영혼의 기개의 요소를 발달시켜 궁극적으로 조화로운 영혼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을 지닌 학생은 비로소 변증술을 포함하는 상위의 학문들을 교육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직 '조화로운 영혼'을 갖춘 학생만이 변증술과 그 예비과정들, 곧 지성 자체의 개발과 각성을 위한 상위의 과정을 올바르게 학습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관점에서 논의하자면, 체육은 원칙적으로 지성의 발달을 위한 교육의 필수적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만 체육이 지성발달에 공헌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8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다. "플라톤의 관념론을 접근해 볼 때, 그의 관념론적 사상은...육체와 영혼의 조화라는 이상적 인간상의 구현을 목표로..."이내[18],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신체와 정신의 혼일조화에서 비롯된다."[19]. 논자는 이런 주장들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부적절한 것들이라 생각한다. 논자의 이해에 따르면, 플라톤은 '육체와 영혼의 조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대신, 그의 '영혼 삼분설'에서 '헤아리는 부분'과 '육망하는 부분'처럼, 서로 의지가 충돌할 수 있는 영혼의 부분들 간의 조화를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영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체육과 시가(mousike)를 함께 중시했다. 이 경우, 체육은 몸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것이 의도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영혼의 기개를 성장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체육도 영혼을 위한 교육인 것이다. 체육을 통해 성장한 영혼의 '기개의 부분'은 '헤아리는 부분'을 도와 영혼의 각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

젊은이들 중에 국가의 수호자(phylox)계급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대상의 선발 과정에서, 플라톤은 체육의 가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국가』, 537b)[7].

...따라서 이 모든 노고와 교과 그리고 무서운 일들을 통해서 언제나 가장 민활(敏活)한 것으로 드러나는 자를 선발인원 속에 포함시켜야 하네...또한 체육을 통해서 각자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가는 그 자체가 동시에 적잖은 시험일세.

그런데 이처럼 체육교육이 강조되는 플라톤의 교육 철학은, 논자는, 구한말 애국계몽 사상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박은식의 교육철학과 깊이 상통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 민족이 대제국을 건설한 금나라(金國)와 같이 단군의 자손으로, 본디 강인하고 활달하며 무사(武事)에 뛰어난 민족이었으나, 조선에 이르러 그러한 기질을 상실하고, 중화사상에나 빠져있는 편협하고 나약하며 위선적인, 한마디로 비루한 노예정신을 지닌 민족이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박은식은 약소국 상태로 전락한 조선이 부흥하기 위해선 우리 민족이 잃어버린 본래의 정신적 기질을 회복시키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는 무(武)를 중심으로 한 체육을 중시한다. 그의 이러한 구상은 소설 『몽배금태조』에 잘 서술되어 있다. 이 작품은 민족이 처한 현실을 개탄하며 앞날에 대한 답을 구하는 선비 '무치생(無恥生)'과 그의 꿈에 나타나 답을 주는 금(金) 태조의 대화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에서 금(金) 태조는, 조선 선비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대통령이 들려주는 우

다. 오직 이런 맥락에서, 플라톤은 체육이 중시되는 교육과정을 구성했던 것이다.

한편, 플라톤의 철학이 '육체와 영혼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은 자칫 그의 철학에서 육체와 영혼의 위상이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우리는 플라톤의 존재론에서 육체와 영혼은 분명히 위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주제의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논자는 체육교육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육체의 지위를 기존의 철학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영혼의 지위에까지 끌어올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체육교육을 통해 의도하는 바를 생각해 본다면, 영혼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조화롭게 가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체육교육의 가치 또한 함께 높아지는 법이니까 말이다.

리 역사」, 「몽배금태조」, p.256[4].

…저 지나처럼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평생을 장기·바둑이나 술로 삼고, 기생과 풍류로 세월을 보내며, 강이나 호숫가에서 흥취를 돋우며 시부를 읊조리며, 정원이나 숲속 누대·정자에서 잔치가 한창인 민족이 어찌 승부를 겨루겠는가? 나는 ‘근로’한테 저들은 ‘태만’하며, 나는 ‘무강’한테 저들은 ‘문약’하며, 나는 ‘진실’한테 저들은 ‘허위’하다면 저극히 공평하신 천심이 누구를 돕겠는가?

이러한 선비들의 모습은 플라톤의 앞선 인용문에서, 체육교육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전 생애를 통해 흥얼흥얼 노래나 빠져 있을 때 만들어지는 인간상인 ‘기개가 없는 나약한 창병(槍兵)’의 모습과 흡사하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이런 자들은 상위의 학문을 공부할 자격이 없다. 마음이 위축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철학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의 모습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국가』, 496a)[7].

…어떤가? 철학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철학에 접근해서 제대로 이와 교류하지 못할 경우에, 그들이 어떤 생각과 의견(판단)을 갖게 되리라고 우리가 말하겠는가? 진실로 퀘변들(sophismata)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알맞은 것들을, 그리고 조금도 순수하지 못하며 참된 지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플라톤의 시대에 참된 지혜 대신에 퀘변들(sophismata)에 빠진 지식인들의 모습처럼, 박은식이 보았던 구한말 선비들의 학문도 진실이 아닌 허위의식에 빠져 있었다고 말한다(「몽배금태조」, p.248~249)[4].

…오직 그 실체를 버리고, 허위를 숭상함이 이와 같은 까닭에, 그 표면이 우아하고 아름다우나 그 내용은 비루한 것이고, 또 그 입으로 말함이 맑고 시원하나 그 마음바탕은 더럽고 탁하여…오로지 그 국가는 형식만 그럴 듯하고 실속 없는 글로서 꾸며낸 채 태평을 가장

하고, 선비 무리들은 잘난 체하고 큰소리나 치면서 명예를 도적질해 진실된 기운이 소멸되고 허위의 악풍만이 자라난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조선은 신체 활동을 천시했다. 그런데 이런 악습은 몸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약해빠지고 게을러진 신체는 끊임없이 자신의 몸의 건강과 자신의 안위만을 돌아보게 하는 나약한 기질을 만들며, 그로 인해 인간의 정신은 자신을 넘어선 곳을 향하는 대신, 자기 몸의 육체성과 그것에 기인한 감각성에 스스로를 가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신체의 약화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의 성장에도 큰 장애가 된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애초에 신체와 정신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의 선분으로 이어진 물질과 영혼이 모상과 원형의 관계를 이루어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듯, 신체의 상태와 정신의 상태는 서로 깊은 영향을 미친다⁹.

따라서 플라톤의 교육론에서 체육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구한말 박은식도 체육활동을 바탕으로 한 정신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에게 강인하고 활달한 정신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설 속 선비 무치생이 묘사한 하늘의 학교인 대동중학교에선, 여러 교과목들 중에 체육이 특히 돋보이게 된다(「몽배금태조」, p.306)[4].

…천문, 지문, 윤리, 역사, 국어, 화학, 물리, 산술, 도화, 음악, 수신 등 각과 교사는 모두 현명한 재능과 정예

9 윤상택은 “형이상학적 입장에서는 그의 심신론적 체계는 심신 이원론을 취하였으나, 인식론적 및 현실의 교육적 입장에서는 체육의 교육적 가치와 실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는 점에서 심신의 통합적 기능을 주장하였다.”라고 주장한다[20].

논자가 판단하기로 위의 주장은 부적절해 보인다. 하나의 철학 안에, 형이상학적 입장과 인식론적 및 교육적 입장이 서로 다르고 구별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논자가 판단하기로 위의 인용문처럼 여러 학자들이 플라톤의 존재론과 교육론 사이에 불일치/단절/괴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 이유는 그들이 플라톤의 존재론을 무반성적이고 부주의하게 ‘이원론’으로 간단히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본 논문에서 논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플라톤의 존재론을 이데아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론(Holism)’으로 파악한다면, 체육을 중시하는 그의 교육론과 존재론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음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하고 심오한 학술로 거침없는 강연이 마치 커다란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았으며 또 제때 내린 비가 고루 적심과 같아 사람 손발이 촉촉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천개소문이 가르치는 제조와 검술 교육이 생기고 힘차며 용맹스럽고 날쌔 마치 용이 오르고 범이 뛰는 듯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한편, 무치생에게 민족부흥의 길에 대한 답을 주는 금 태조는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대륙보통학교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무강한 기풍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의 구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몽배금태조』, p.291)[4].

…대륙학교 교사로는 몽골 대신 야율초제를 초빙하여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말을 타고 내달리던 정신을 가르치면 그 신체가 단련되어 연약한 성질을 개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루한 풍습도 자연히 씻겨 없어지고, 신지식과 신도덕으로 동포를 사랑하는 사상도 생겨날 것이며, 다른 민족에 대하여 인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체육교육과 관련된 이 단원의 논의를 정리하면, 플라톤과 박은식이 체육활동을 중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몸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영혼을 조화롭게 하고 정신의 힘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과 정신의 토대 위에서만이 참다운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교육관에서 체육은 사람이 학문을 수행하기 위한 마음의 기본바탕을 만든다. 즉, ‘武는 文의 전제’인 것이다.

2.3 체육과 무(武), 그리고 젠더

플라톤의 교육과정에 나오는 체육프로그램은 주로 전쟁과 관련한 기술들이다. 『국가』에선 최선의 체육은 단순하고 훌륭한 체육, 특히 전쟁과 관련되는 것들의 체육이라 말한다(『국가』, 404b)[7]. 그리고 플라톤이 구상한 학교의 모습은 그러한 교육철학이 반영되어, 학생들이 전쟁과 관련된 배움을 충실히 배울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법률』에 묘사된 학교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법률』, 804d)[16].

…김나시온(체력 단련장)들과 공공 학교들의 건물들은 도성 중심 지대의 세 곳에 마련되고, 다시 외곽 쪽으로 도심 주변 세 곳에도 승마 체력 단련장들과 활쏘기 및 그 밖의 경무장 보병들의 무기 던지기를 위해 넓은 빈터가 마련되는 걸로 말했죠…이들 모든 건물에는 급료에 응한 각 분야의 외국인 교사들이 거주하면서, 전쟁과 관련된 학과목들인 모든 것을, 그리고 시가와 관련된 모든 것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플라톤이 구상한 체육교육은 유아기 때는 아직 놀이의 형태이나, 여섯 살부터는 승마, 활쏘기, 투창, 투석기 등의 본격적인 전투기술 교육이 시작된다(『법률』, 793e)[16]. 학생들의 놀이와 춤은 무장한 상태로 영웅이나 여신을 모방하는 내용의 것을 하며(『법률』, 796b~c)[16], 어린 시절부터 실제 전장에 나가는 나이인 스무 살 무렵까지, 학생들은 무장을 갖추고 말을 타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것 이외에, 다른 형태의 체육은 배제된다(『법률』, 796d)[16].

이처럼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과정에서 전쟁과 관련된 체육활동을 수련하여 전사(戰士)로 길러지며, 앞서의 장에서 서술했듯이, 그 중 뛰어난 전사의 품모를 갖춘 자들에 한해 상위의 교육과정인 변증술과 그 예비과정의 과목들이 교육된다. 이 과정은 국가의 통치와 국방의 임무를 담당하는 수호자(phylax)계급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리더계급을 형성하는 이들은 문약함과 거리가 먼 전쟁투사 출신의 지성인들이다. 소크라테스는 상위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국가』, 521d)[7].

…그러면 글라우콘, 생성되는 것(to gignomenon)에서 실제로 혼을 끌어당기는 교과(학문:mathema)는 무엇이겠는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이런 생각이 나네. 이 사람들이 젊을 적에는 전쟁 투사들이어야만 한다고 우리가 실은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가하면, 플라톤의 교육체계에선 남/여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여성도 군사교육을 포함한 기본교육을

똑같이 받는다. 플라톤은 사회의 구성원이 받아야 할 교육과 종사할 업무와 그에 따라 편입되는 계급의 종류는 성별의 차이가 아닌 각자의 고유한 개인적 성향과 그것에 의해 발휘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는 성별과 무관한 공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상급 교육으로 진학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계급이 형성되도록 한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성별의 구분 없이 일이 맡겨진다(『국가』, 455e)[7].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일(업무)로서 여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것인 것은 없고, 남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것인 것도 없다네. 오히려 여러 가지 성향이 양쪽 성(性)의 생물들에 비슷하게 흩어져 있어서, 모든 일(업무)에 여자도 ‘성향에 따라(kata physin)’ 관여하게 되고, 남자도 모든 일(업무)에 마찬가지로 관여하게 되는 결세.

플라톤 시대의 그리스에선, 여성들이 국가의 통치나 국방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당시엔 공적인 업무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 상식이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의 법칙에 부합한다고 여겼으나, 플라톤은 여자들을 수호자의 업무를 포함한 사회적 임무에서 배제하는 당대의 현실이 자연의 법칙에 오히려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국가』, 456c)[7]. 그는 그러한 관행이 사회가 남성 인력과 여성 인력을 똑같이 활용해 국력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는 입법자의 실수라고까지 주장한다(『법률』, 805a~b)[16].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플라톤의 인간관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능력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에 따라 여성도 사회의 각 분야에 기여하는 인재로 충실히 키워질 수 있도록 전쟁술과 관련한 체육교육 역시 남성과 동등하게 받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여성들도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법률』, 813 d~e)[16].

…전쟁과 관련된 것들로 몸을 위한 모든 고역도 우리는 체력 단련들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술도, 일체의 던지기도, 경무장 보병 기술도, 일체의 중무장 전투도, 전술적 전개들도, 군대들의 일체 원정과 야영 그리고 승마에 속하는 하고많은 과목들도 말입니다. 이것들 모두에는 나라에서 보수를 받는 공공의 교사들이 있어야만 하며, 이들의 제자들로써는 이 나라의 소년들과 남자들이 되어야 하고, 소녀들도 여인들도 이 모든 것을 아는 자들로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교육관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의무와 역할을 구분하는 관행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숙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4 기개와 모험정신

2.4.1 사대주의와 쇄국정책

『몽배금태조』에 서술된 박은식이 살펴본 조선의 지정학적 상황은 앞에는 대양(大洋)으로, 뒤에는 대륙으로 이어져 있어, 진취적 기상과 그에 따른 책략을 강구하면, 태평양은 조선의 바다가 되고 북방의 대륙은 조선의 영토가 됨으로써, 조선은 바다와 육지에서 모두 크게 위세를 떨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겪은 조선인들은 자신들을 소국인(小國人)으로 비하하며 중국을 섬기는 사대주의에 빠진 채, 이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진취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스스로의 강역과 활동무대를 한반도로 한정하는 쇄국정책으로 이어져, 민간의 대외 교역과 교류가 금지되고, 그에 따라 조선은 세상물정에 어둡고,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빈곤한 국가가 되고 말았다고 박은식은 분석하였다.

또한 조선은 자신의 역사 대신 중국의 역사를 배우고, 자신의 문화를 정립하지 못한 채 중국의 것만을 무비판적으로 따라 하며 선망하는데, 박은식은 이를 노예근성으로 간주하였다(『몽배금태조』, p.253)[4]. 이렇게 소설 『몽배금태조』에 묘사된 조선은 정치, 경제, 군사, 법률,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였다. 박은식은 조선이 대외 경쟁과 밖을 향하는 진취적 노력이 없었던 이유로 긴 세월을 걸쳐 일 하나

이론 바 없고, 계획 한번 추진한 바 없이, 백성들은 말은 직무를 게을리하고 눈앞의 편안함만을 취하는 습관과 나태하고 안일한 풍조에 물들어, 무기력한 사회가 되었다고 분석한다(「몽배금태조」, p.277)[4]. 그는 고구려 시대의 강한 무력의 기풍과 독립적인 성격, 신라의 스스로 지키는 정신, 그리고 고려 말까지 이어져 오던 자강의 기풍이 끊어져 조선에 이르러 오백 년간 부용과 폐쇄의 시대가 되었다고 지적한다(「몽배금태조」, p.249)[4]. 박은식은 소설 속 금 태조의 입을 통해 나약해져 버린 조선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개탄한다(「몽배금태조」, p.269)[4].

…그렇다면 이처럼 뼈도 없고 피도 없는 인민을 어디에다 쓰겠느냐? 자기 나라 정부의 확대에 한 번도 반항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다른 나라의 확대를 받지 않겠으며, 이처럼 쓸개 빠진 비겁한 선비들을 어디에다 쓰겠느냐? 자신의 화복 때문에 국민의 화복을 생각하지 않으니 어찌 다른 민족의 노예 됨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처럼 당대의 조선인들이 상실한 정신의 기질인 ‘무강(武強)한 기풍(氣風)에 해당하는 것을 플라톤 철학에서 찾았다면, 그것은 체육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영혼의 기개(격정: thymos)’와 관련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기개 있는 인간은 이성애 따른 신념을 고통이나 쾌락에 좌우되지 않고 보전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국가』, 442c)[7].

…또한 우리가 개개인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 부르는 것도, 이 부분에 의해서, 즉 그의 격정적인 부분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서 이성이 지시하여 준 것을 고통과 쾌락에 통해서도 끝끝내 보전하게 될 때라고 나는 생각하네.

이와 관련해서 박은식이 소설에서 금 태조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이유는, 우리와 같은 단군의 자손인 금 태조야말로 조선 민족이 상실한 본래적 정신을 보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큰 업적을 이룬 인간의 표본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소설의 금 태조는 말

하길, 조그만 부락에서 시작한 여진(女眞)이 주변의 강대한 국가들을 물리치고 대금국(大金國)의 영예를 만든 비결은 정신력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조선 청년도 담력과 용기를 기르고 가슴을 펴 승리의 뜻을 굳건히 세우면, 자신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처럼 장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몽배금태조」, p.281)[4]. 박은식의 관점에서, 조선이 사대주의와 쇄국정책으로 몰락한 이유는, 금 태조를 통해 말한 ‘정신력’의 상실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우리 민족 본래의 기상 회복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몽배금태조」, p.271)[4].

2.4.2 플라톤의 영혼, 박은식의 마음.

플라톤은 좋음(善: to agathon)의 이데아(he tou agathou idea)가 ‘가장 큰(중요한) 배움’이며, 바로 이 이데아 덕분에 올바른 것들도 그 밖의 다른 것들도 유용하고 유익한 것들로 된다고 말한다(『국가』, 505a)[7]. 즉, ‘좋음(善)의 이데아’는 모든 것의 궁극적 원리(arche)다¹⁰.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 ‘좋음(善)의 이데아’를 직관하는 지성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진리(Aletheia)와 실재가 비추는 곳에 고착할 때는, 이를 지성에 의해 즉시 알게 되어 지성을 지니게 되나, 어둠과 섞인 것에, 즉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에 혼이 고착할 때는 ‘의견(억측: doxa)’을 갖게 되고, 이 의견들을 이리저리 바꾸어 가짐으로써 혼이 침침한 상태에 있게 되어, 지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한다(『국가』, 508d)[7].

이 경우, 교육의 역할은 감각의 대상인 유한한 것으로부터 지성의 대상인 무한한 것으로 혼의 전환을 이루어 내어 ‘인간의 영혼이 진리(Aletheia)와 실재가 비추는 곳에 고착하게 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플라톤은, 인식되는 것들에 진리를 제공해주고 인식하는 자에게 그 ‘힘(Dynamis)’을 주는 것은 ‘좋음(善)의 이데아’라고 선언한다(『국가』, 508e)[7].

이에 반해,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인간의 육체를 감옥에 비유한다(『파이돈』, 82e)[2]. 이 비유의 의미는, 인간의 육체성과 그것의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¹⁰ 박종현 역주, 플라톤의 국가-政體, 서광사, 2005, p.528, 각주 71을 인용

영혼이 진리와 멀어질 때의 상황을 뜻할 것이다. 즉,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에 혼이 고착된 인간의 현실에 대한 비유라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플라톤의 '영혼 삼분설'에 근거해 말하면, 그러한 인간은 욕구적인 부분의 지배력이 커서, 헤아리는 부분을 통한 지성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영혼의 세 부분간의 내분(stasis)이며, 지배함에는 적합지 않은 부분이 영혼을 지배하려 드는 모반(epanastasis)으로 파악하여, 이를 올바르지 못함이며 무절제요, 비겁이며 무지라고, 요컨대 일체의 '나쁨'(나쁜 상태, 악덕: kakia)이라고 규정한다(『국가』, 444b)[7].

이러한 상태가 초래되지 않으려면,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영혼의 구성요소 중 헤아리는 부분이 기개의 부분의 도움을 받아 욕구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영혼의 각 부분들이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는 조화로운 상태, 즉 '올바름'을 이루어내야 한다. 훌륭한 기개를 지닌 사람은, 고통에 처하여서도 즐거움에 처하여서도, 그리고 욕망에 처하여서도, 공포에 처하여서도 소신을 버리지 않고 끝끝내 보전하여 지키므로(『국가』, 429d)[7], 그 영혼은 감옥과도 같은 육체성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헤아리는 부분의 인도를 따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플라톤에 의하면, 오직 이런 사람만이 변증술을 포함하는 상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좋음(善)의 이데아'를 직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는 영원의 세계를 응시하며 감각의 세계에는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다.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에 대해 플라톤은, 그는 이제 신적이며 절도 있는 것과 '함께 지냄으로써' 그 자신이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도까지, 절도 있고 신과도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국가』, 500d)[7].

한편, 박은식이 『몽배금태조』에서 제시한 '정신교육'의 근본적 완성, 시 공간을 둘러싸고 있으며, 만유

현상의 원인이라 그가 말한 '마음'을 수련함으로써 이루어진다(『몽배금태조』, p.272)[4]. 그는 서술하길, 만약 그 수련하는 자세가 충족되면 과감성과 자신력이 생겨 활용할 기관이 마치 쏟아지는 비처럼 막힐 것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에 대해 설명하길, 이것의 원질은 그 영험이 불가사의하여 우매하지 않고 청명하고 허물이 없으며, 이것의 본능은 진실하여 거짓이 없으며 독립하여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의 진정은 정직하여 아첨하지 않고 강직하여 굴하지 않는다. 이것의 본체는 공평 정대하고 널리 두루 살피며, 이것의 능력은 시비를 가려내고 감응이 귀신처럼 빠르다고 기술하였다(『몽배금태조』, p.273~274)[4].

그런데, 마음의 영험한 능력을 사람들 모두 갖고 있지만, 세속에 물들고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 그 능력이 발현되지 못한다고 한다(『몽배금태조』, p.274)[4]. 따라서 이 수행을 하려면, 마음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 이것의 인도를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개인적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몽배금태조』, p.274)[4]. 이 수행의 과정에서 박은식이 강조하는 정신력인 '과감성과 자신력'이 배양된다(『몽배금태조』, p.274)[4].

논자는 이러한 박은식의 마음의 수련에 대한 기술은, 플라톤의 영혼의 공부에 대한 기술과 매우 흡사하다고 판단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존재의 궁극적 원리를 상정하고, 인간에게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그들에게 교육 자체의 궁극적 목표와 이념은, 인간의 육체성에 기인한 욕망과 두려움을 극복하여, 인간이 지닌 이러한 본연의 능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둘 모두의 교육관에서 체육교육은 궁극적인 교육의 이념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2.5 부국강병(富國強兵)의 이상

2.5.1 이상국가

플라톤의 『국가』를 관통하는 중심주제는 '올바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 올바름의 의미는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각각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플라톤은 한결 큰 규모의 것인 국가적 차원의 올바름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는 일을 먼저 시도해 봄으로써, 개

11 강유원은, "체육교육은 영혼교육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심신일체적 신체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9]. 하지만 논자가 판단하기로, 강유원의 주장은 마음이나 영혼을 신체의 한 부분이거나 혹은 신체적 작용의 부수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유물론적 이해를 의미할 뿐이다. 이런 결론은 명백히 플라톤적 사유와 정면으로 대립한다.

인에 있어서 올바름이 어떤 것인지를 한결 쉽게 알아내고자 한다(『국가』, 434d)[7]. 그는 국가의 올바름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삼대 계층인 통치자들(hoi archontes)과 그들의 신념을 보조하는 자들(epikouroi), 그리고 돈벌이를 하는 생산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제 일을 하는 것(to ta hautou parattein)이 실현되는 것이라 규정한다(『국가』, 433b)[7]. 통치자들은 교육의 모든 과정을 완수해낸 철학자들로서 그들이 지닌 지식에 의해 나라는 지혜롭게 되며(『국가』, 429a)[7], 보조자들은 통치자들에게 협력하는 전사(戰士)들로서 그들은 입법자가 지시한 것들에 대한 소신을 불굴의 의지로 지켜내 나라를 용기 있게 한다(『국가』, 429c)[7]. 마지막으로 생산자들은 앞의 두 계층들을 자신들보다 성향상 한결 나은 계층들로 인정하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다. 플라톤은 이러한 위계적 지배구조를 모든 계층들이 인정하고 따를 때, 나라는 절제를 갖추게 된다고 한다(『국가』, 431e)[7]. 그리고 이렇게, 국가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직분을 다하여, 국가가 지혜와 용기와 절제의 가치를 구현하였을 때, 국가의 올바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가는 특정 집단(ethnos)이 아닌 시민 전체가 최대한으로 행복해지는 국가다(『국가』, 420b)[7]. 그리고 이것이 곧 플라톤이 구상한 이상국가 모습이다.

‘국가의 올바름’에 대한 이러한 규정을 염두에 두고, 이제 논자는 박은식의 『몽배금태조』에 나오는 선비 무치생의 한 가지 질문을 고찰해 보려한다. 그는 ‘도지와 인구의 크기로 볼 때 조선은 세계의 기준에서도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루고 있음에도 약소국으로 몰락한 이유’에 대해 묻는다(『몽배금태조』, p.256)[4]. 그 물음에 대한 금 태조의 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의 지배계층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둘째, 조선의 지배계층은 정치의 기초와 시무(時務)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공의식 없이 사리사욕만 채우려 든다.

셋째, 국민들이 기술도 없고 직업에 힘쓰지 않으며 놀고먹기만 한다(『몽배금태조』, p.257)[4].

이 상황을 플라톤의 ‘국가의 올바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점에 의거해서 보면, 조선의 모습은, 통치자 계층에겐 지혜가 없고, 보조자 계층에겐 용기가 없으며, 생산자 계층은 재화의 생산이라는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은 ‘국가의 올바름’을 이루는 그 어떤 미덕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약소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필연적 결과라 하겠다. 금 태조는 조선의 문제에 대해 위와 같이 답한 후, 다음과 같이 말을 잇는다(『몽배금태조』, p.259)[4].

…그러므로 조선의 2천만 민중이 모두 그 국민의 의무와 국민의 정신으로 그 기능과 직업에 힘써야 독립의 자격과 자유의 능력이 생겨 이 인종경쟁의 시대에 도태되는 화를 면하고 생존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논자는 박은식이 생각하는 이상국가도 체육교육과 그로 인한 상무정신(尙武精神)을 전제로 강건하며 공동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는 지배층과 더불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부지런히 자신의 직분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2.5.2 강병부국(強兵富國).

박은식은 『몽배금태조』를 통해, 몰락한 조국의 앞날을 위해 할 것은 청년자제를 교육하여 신(新) 국민을 양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의 교육이념은 소설에 등장하는 학교들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의 가치에 나타나 있다. ‘하늘이 세운 학교’는 일반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그들의 마음에 길러내고자 하는 것은 ‘과감성과 자신력과 모험심’이다(『몽배금태조』, p.308)[4].

소설에선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로, 금 태조나 칭기즈칸처럼 대제국을 이룬 정복군주들을 비롯해 콜럼버스, 리빙스턴, 마젤란 같은 대항해시대의 탐험가들, 그리고 크롬웰, 워싱턴, 링컨처럼 구(舊)시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연 정치가들을 예로 든다(『몽배금태조』, p.282)[4]¹².

12 조상우는 “당대 지식인들도 여러 부류로 나뉘었다. 전통을 지키자는 유학자 계열과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계몽주의자 계열이 있었다. 그런데 이 양자만 존재하는 것이

그런데, 박은식에 의하면, 이러한 정신은 군사적 정복과 무장투쟁 및 지리적 개척 같은 대외적 활동의 동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학술과 사상의 영역처럼 내면적 지성의 세계를 성장시키는 힘도 제공한다. 그러한 예로 그는, 민약론을 저술한 루소, 양지학을 주창한 왕수인, 대화론을 주창한 길전구방¹³의 예를 든다(「몽배금태조」, p.269~270)[4].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지성의 활동 역시 상기의 정신적 가치들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결연한 기개와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인간이 만들어온 모든 역사와 문화는 '과감성과 자신력과 모험심'이라는 정신의 기반 위에서 이룩된 것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신성이 없다면 인간은 어떤 위대함도 이루어 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박은식의 눈에 비친 조선 몰락의 근원적 이유였던 것이다.

한편, 그가 해삼보통학교와 대륙보통학교를 통해 일반 백성의 정신에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단합심과 활동심'이다(「몽배금태조」, p.308)[4]. 이러한 정신적 가치가 발휘된 예로 소설에선 금 태조의 정복전쟁을 든다. 그가 전쟁을 벌일 시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지휘관이든 병졸이든, 각자의 역할을 맡아 단합된 힘을 발휘한 것을 천하정복의 비결이라 한다(「몽배금

태조」, p.286)[4]¹⁴.

박은식은 그와 같이 세상에서 우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모두 단결된 정신과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이 민족 간의 경쟁에서 승리의 비결이라 파악한다(「몽배금태조」, p.287)[4]. 여기서 논자가 주목하는 것은 박은식이 자신의 소설에서 설정한 각 학교들에서 교육의 역점으로 두는 정신의 가치들이 모두 우리 민족이 상실한 '무강한 기풍'과 연계된 것이라는 점이다. 즉, 전사(戰士)의 기질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그가 교육하고자 하는 정신의 가치들을 바탕으로 이룩되는 강대한 국가는 기본적으로 전사(戰士)들의 나라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플라톤의 이상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린 시절부터 체육교육을 통해 영혼의 기개를 갖추고 있는 것과 비견된다. 박은식과 플라톤의 논리에 따르면, 국민 개개인의 투철한 정신력이나 영혼의 기개는 국가 번영의 기초다.

이런 논의를 전제로 논리적으로 추론할 경우, 한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과정은, 일반적 상식처럼, 특정 국가가 먼저 부유해지고 후에 그 부유함을 전제로 강한 국방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보다는, 건강하고 강한 신체와 모험적이고 부지런한 정신을 지닌 국민들이 전제되는 한에서만 비로소 부유하고 강건한 국가가 건설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간략히, 논자는 '강병부국(強兵富國)'이라 부른다.

III. 결론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이해에 따르면, 감각적 사물들

아니라 이 둘을 혼합하려는 입장이 있기도 하였다. 그들이 바로 '동도서기론자' 계열이다. 이들은 대개 어려서는 漢學을 공부하고 장성하여 서구의 문물과 학문을 접하여 구태로부터의 변혁을 꿈꾸던 자들이다.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몽배금태조』의 작가인 박은식도 이 부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21].

그러나 논자는 그의 사상을 '동도서기론' 계열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동도서기라 함은 동아시아 고유의 내면적 가치와 전통질서를 온전히 보존한 상태에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자는 입장을 의미하는데, 박은식 선생에게선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조선의 유교문명/문화는 그 자체로 격렬한 비판의 대상일 뿐이다. 또한 『몽배금태조』에서 우리 민족이 회복해야 할 정신의 가치들로 제시된 것은 천실학교를 통해 배양될 '과감성과 자신력과 모험심'과 해상 및 대륙보통학교를 통해 배양될 '단합심과 활동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의 가치들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의 범주에만 묶을 수는 없는 인류의 보편적 정신성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박은식 선생은 이러한 정신을 구현한 인물들의 사례들로 동서고금을 망라해 다양한 사람들을 열거한 것이다. 따라서 박은식 선생을 '동도서기론' 계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13 요시다 노리가타(吉田矩方).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본명이다.

14 조상우는, "결론적으로 볼 때 박은식의 『몽배금태조』는 금태조와 같은 막강한 능력의 소유자인 영웅이 다시 한 번 金을 건국하듯 조선을 구해달라는 염원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1].

그러나 논자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논자가 파악하기로 박은식 선생이 지목한 조선몰락의 근본적 원인은 조선 민족의 정신이 상류층부터 하류층 까지 모두 건강한 활력을 상실한 채 그저 '비루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조선이 부흥하기 위한 방책은 사회일반 모두가 교육을 통해 다시 건강한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미래의 영웅에 대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논자의 이해로는,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조선 민족 모두가 모험심과 기개 넘치던 과거의 역사의 영웅들을 모범삼아 각자 자신의 정신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 지성의 대상인 이데아에 비해 존재론적 위계 속에서 열등하며 하위에 놓여 있으나,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데아 자체의 참여에 기초해 존재론적으로 서로 닮아 있는 연속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상위의 것은 하위의 것의 원형이며 근본이지만, 반대로 하위의 것은 상위의 것의 모방이며 표현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그 둘은 '고유한 방식으로' 상보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육체와 영혼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고유한 위계 속에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플라톤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체육과 무(武)를 필수적 과정으로 이해했으며, 오직 체육과 무를 통해 단련된 신체와 공동체 의식을 온전히 갖춘 자에 한에서만 보다 상위의 교육, 즉 영혼과 이데아에 대한 교육을 허용했다. 이런 관점은 그의 사회 계급관과 영혼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그의 이상국가에서 '기개(Thymoeides)'를 갖춘 무인(武人), 곧 전사(戰士)의 위상은 매우 높다. 그리고 최상위 계급에 위치하는 철인(哲人)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이기 이전에 전사(戰士)다. 즉 문(文)은 무(武)에 기초한다. 다시 말해, 오직 무(武)를 갖춘 자만이 문(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플라톤의 이런 '상무(尙武) 정신'은 '젠더(性) 적 차이'도 넘어선다. 그래서 그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교육을 강조하며, 여성에게도 체육과 군사교육을 똑같이 시키며, 동일 기준으로 평가해서 계급이 결정되도록 한다. 그에게 젠더적 특수성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성과 관련이 없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며 냉정한 평등주의'라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독립운동가 박은식 역시 플라톤과 유사한 교육관을 가졌는데, 그에 따르면, 조선이 빈곤하기 짝이 없었으며 그토록 굴욕적이고 무력하게 식민지가 된 이유는 '무(武)의 실종'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본래 조선은 금나라(金國)와 같은 겨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적인 강인하고 부지런하고 활력적인 기상을 상실하고, 대신 사치스럽고 염세적이면서도 위선적인 중화사상과 성리학에 도취되어 극도의 자기비하, 나약함, 그리

고 현실도피에 빠져, 경제적으로도 극도의 파탄지경에 이르고 급기야 나라가 무력하게 망하고 식민지가 되는 치욕을 겪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사상과 박은식의 사상 사이에 있는 유사성의 정점은 그 둘의 이상적 국가관에서 드러난다. 사실, 그 둘의 이상적 국가관은 매우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그들이 기획했던 국가들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강건한 신체와 협동심을 바탕으로, 활력적이며 담대해서 절대 포기할 줄 모르며 부지런히 자신의 몫을 다 하는 이유로,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며 동시에 궁극적으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라의 풍요와 번영은 오직 강력한 국방력을 전제로 하며, 이는 다시 그 구성원들의 강건한 신체와 정신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 논자가 주장하려는 것은, 결론적으로, 혼란스럽고 소모적인 한국의 교육이 정상화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체육과 무(武)에 대한 참된 이해와 그에 부합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윤재백, "플라톤 체육사상의 대안적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32권, 제1호, pp.1127-1133, 1993.
- [2] 박중현 역주, *플라톤의 네 대화편 에우프티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서광사*, 2003.
- [3] 여인성, "플라톤의 법률편에 나타난 체육내용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1권, 제2호, pp.171-189, 2003.
- [4] 박은식 지음, 조준희 옮김, *대통령이 들려주는 우리 역사*, 박문사, 2011.
- [5] 박중현, 김영균 공동 역주,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서광사, 2000.
- [6] 박중현 역주, *플라톤의 향연 파이드로스 리시스*, 서광사, 2016.
- [7] 박중현 역주, *플라톤의 국가政體*, 서광사, 2005.
- [8] 정삼현, "플라톤의 체육과 용기형성 연구," 한국

- 체육철학회지, 제7권, 제2호, pp.255-274, 1999.
- [9] 강유원, “플라톤의 체육교육 사상,”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6호, pp.45-52, 2003.
- [10] J. R. Fairs, “The Influence of Plato and Platonism on the Development of Physical Education in Western Culture,” *Quest*, Vol.11, No.1, pp.14-23, 1968.
- [11] L. J. Cahn, *Contributions of Plato to Thought on Physical Education, Health and Recreation*, PhD diss, New York University, 1941.
- [12] 윤미정, “『파이돈』, 『파이드로스』와 『국가』를 통해 본 플라톤의 신체와 영혼의 가치이원적 관계,”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9권, 제1호, pp.177-188, 2011.
- [13] 김미숙, “플라톤의 教育理論에 나타난 體育思想,” 공주대학교 스포츠科學研究所論文集, 통권, 제6-7호, pp.187-227, 1993.
- [14] 강성훈, “플라톤은 심신이원론자였는가?,” 철학, 제124호, pp.1-25, 2015.
- [15] 박종현 역주,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라케스* 메논, 서광사, 2010.
- [16] 박종현 역주, *플라톤의 법률*, 서광사, 2009.
- [17] 한정선, “플라톤의 신체교육관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교양교육연구, 제8권, 제1호, pp.193-216, 2014.
- [18] 이승건, 안용규, “체육철학: 플라톤의 관념론에서 육체(soma)와 체육(gymnastike)의 의미,”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5권, 제2호, pp.141-162, 2007.
- [19] 한정선, “연구논문: 플라톤의 교육관에 대한 연구-신체교육관의 현대적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2권, 제2호, pp.55-69, 2011.
- [20] 윤상택, “플라톤 체육사상의 광의적 해석에 관한 연구,” 제주관광대논문집, 제5권, pp.219-227, 1999
- [21] 조상우, “『몽베금태조』에 표현된 현실인식과 이상세계,” 동양고전연구, 제40권, pp.169-194, 2010.

저 자 소 개

홍 영 기(Youngki Hong)

정회원



- 1997년 2월 : 원광대학교 의학과 (의학사)
- 2009년 2월 : 고려대학교 의학과 (의학석사)
- 2011년 7월 : 고려대학교 의학과 (의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교수

<관심분야> : 척추재활, 체육철학

홍 진 기(Jinkee Hong)

정회원



- 1993년 2월 : 동국대학교 철학과 (철학사)
- 1996년 8월 : 서강대학교 철학과 (철학석사)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철학과 (철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교수

<관심분야> : 형이상학, 역사철학